

한국문화교류 소식

54호 2024년 12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5643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3, 남양빌딩 4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한미연합회(AKUS) 부산대회를 다녀와서



박원출
ICKC 감사, 수필가

2024년 10월 3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미연합회(America-Korea United Society, AKUS)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총회에 이은 두번째 총회로 한미동맹 71주년 기념행사와 한미연합회 남부지부 창설을 겸하여 열린 행사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회원 800여 명과 미국의 각지부에서 방한한 회원 150여 명, 6·25 참전용사, 주한미군 50여 명과 각계인사들이 함께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한미연합회는 2021년 미국에서 출범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성원하는 활동을 이어왔으며, 한국에서는 2022년부터 지회와 본부를 구성하고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 본부에서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미국 상하 양원과 각 지역에서 상영하는 등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은 정치외교와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부국이며 강국인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면서 그 영향을 크게 받아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주장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오늘과 같은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온 배경에는 한미관계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 덕분에 대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을 통해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어 한미관계의 역할과 가

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도 6·25전쟁에서 유엔군의 참전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양국의 정권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으며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미관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 사이에 그 가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연합회 같은 민간조직의 폭넓은 세력화와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공공정책협의회(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의 활동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김영길 총회장은 한미연합회는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과 미국 내 한국동포들 그리고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만든 조직으로서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각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 형성과 국민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합니다. 긴밀한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 10월 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2024 한미연합회 부산대회'



▲ 인사말하는 송대성 한미연합회 한국회장(左)과 기조연설 중인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위하여 부산대회의 슬로건인 “We Stand Together”의 정신으로 더욱 폭넓고 효과적인 활동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은 여러 면에서 상징성을 지닙니다. 부산은 6·25전쟁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유엔군이 최초로 상륙한 곳이며, 세계유일의 UN군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대회장인 전호환동명대 총장은 1953년 부산역전 대화재 때 군의 규율을 여기면서 3만명에 이르는 이재민을 구호한 리처드 S 윌트컴 장군을 기리면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미연합회의 취지와 활동은 한글과 태권도를

통해 세계인이 한국을 사랑하게 하려는 ICKC의 목적사업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ICKC 회원들의 기여와 참여가 가지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송대성 한미연합회 한국대표도 ICKC 회원이며, 대회에 많은 도움을 준 유명철, 박의근 회원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전영섭, 김용구, 이석복, 최광, 박기연, 고용규, 박원출 회원이 참가하였으며, 부산에서도 류성렬, 이상기, 김건길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부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필두로 앞으로도 한미연합회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총회 방문기를 마칩니다. ■■■■■■■■



◀ ICKC 회원인 유명철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감사패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함께 감사패를 수상한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 참석한 ICKC 회원. 뒤줄 왼쪽부터 최광, 박의근. 앞줄 왼쪽부터 류성렬, 이상기, 김건길 회원



▲ 부산대회에 참석한 ICKC 회원. 왼쪽부터 전영섭, 박기연, 김용구, 박원출, 박의근 회원.

한국,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 13회 연속 종합우승!

완벽한 마무리, 마지막 날 단체전·자유품새 혼성전 등 금메달 싹쓸이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한국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 13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한 '홍콩 2024 WT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지난 11월 30일 홍콩 콜리세움에서 개막해 5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공인품새와 자유품새 2개 종목에서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 등 총 42개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소년부터 장년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마지막 날 한국은 2개 부문에 출전해 금메달을 모두 휩쓸며 대회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자유품새 17세 초과 복식전에 출전한 김성진(용

인대)과 정하은(포천시청)은 예선 4위로 결선에 진출했지만, 결선에서의 활약은 압도적이었다. 두 선수는 환상적인 호흡과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며 9.44점으로 필리핀(9.26점), 대만(9.16점), 태국(9.06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공인품새 남자 50세 이하 단체전에서는 지호용(고수회), 이준(도복소리), 송기성(명장태권도장)이 팀을 이뤄 결승에서 대만을 8.84점 대 8.74점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태권도 품새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42개 부문 중 27개 부문에 출전해 금메달 1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금메달 8개를 획득한 미국(금 8, 은 4, 동 3)이 차지했고, 마지막 날 대만(금 4, 은 5, 동 6)이 선전하면서 금메달 4개로 3위를 기록했다.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계품새선수권대회 이후 13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한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공인 품새 남녀 최우수선수(MVP)는 3연패를 달성한 이주영(30대 이하부)과 중국 주위시양(청소년부), 자유품새 부문은 변재영(17세 이하)과 차예은(17세 초

과)이 수상했다. 최우수 지도자상은 남자팀은 한국의 신현창 코치와 엄재영 코치가 받았다. 최우수심판상은 중국 타이 위, 핀란드 타투 리바이넨 심판원이 받았다.

17세 이하 자유폼새를 우승한 변재영(성호중)은 공중을 훨훨 뛰어올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최고난도 아크로바틱 연속 회전기술과 절도 넘치는 동작으로 전 관중에게 찬사를 받으며, 이번대회 가장 주목받은 스타로 부상했다. 이날 경기 영상은 SNS에서 연일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자유폼새 여자 개인전 2연패를 달성한 차예은(웅인시청)은 여성 선수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공중 가위차기 연속기술과 720도 뒤후려차기, 공중 4단계 연속 발차기는 물론 말끔한 태권도 동작을 완벽히 소화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펼쳐 보였다.

공인폼새 여자부 30세 이하부(18~30세)에서 우승한 이주영(한국체대)은 유소년부, 청소년부에 이어

성인부까지 석권하며, 전무후무한 세계선수권 3연패 달성했다. 특히나 이번 여자 30세 이하부 우승으로 10년 만에 정상에 되찾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통적인 태권도 강국 이란과 대만, 베트남, 중국, 태국 등이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의 선수들이 공인폼새에서 성과를 냈다. 특히 미국은 전 연령별 공인폼새와 자유폼새 모든 부문에서 이전보다 확연하게 성장세를 보였다. 캐나다는 자유폼새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조정원 WT 총재는 “세계폼새선수권은 유소년부터 65세 이상 장년부까지 전 연령이 자국의 명예를 걸고 세계 무대에서 겨루는 유일한 종목이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저변을 확대하며




▲ 17세이상 남녀팀 한국우승 세레머니

실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2년 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폐막식에서는 종합 시상과 함께 WT태권도시범

단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다음 대회는 2년 후 열릴 예정이며, 개최지는 내년 5월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에서 열릴 WT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 50세이하 남자팀 부문에서 우승한 한국팀



▲ 왼쪽부터 조정원총재 그리고 자유폼새 부문 MVP를 수상한 변재영, 차예은



▲ 조정원 총재와 13연패를 달성한 한국팀(왼쪽 네번째)

한국문화 이벤트로 즐거움을 나눕니다



장 영 순

에히메대학 한국어 강사

저는 일본 시코쿠(四国) 지방에 있는 마쓰야마 시(松山市)에 살고 있습니다. 시코쿠 지방에는 에히메, 가가와, 도쿠시마, 고치의 네 개 현이 있는데, 마쓰야마시는 그중 에히메현의 현청 소재지로 인구는 약 51만 명이며, 시코쿠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 비해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지닌 마쓰야마는 마치 슬로우 시티처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도고 온천이 있으며, 산과 바다가 가까워 생선회, 우동, 굴 등도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마쓰야마에 있는 에히메 대학과 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4차 한류 붐의 영향으로 학습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마쓰야마에서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 비해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한국문화 관련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벤트를 주최하는 모임과 함께 지금까지 개최한 이벤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벤트는 “동그라미”라는 한일 대학생 모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에히메대학교 중급반 일본인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한국어를 공부해도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에히메 현에서 유학 중인 한국 유학생들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 일본인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도 공부하고 게임도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동그라미’라는 동아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벌써 10여년 전의 일이 되었고, 2024년12월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에 한국어 공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회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동호회인 ‘세모네모’를 만들었습니다. ‘세모네모’라는 이름은 대학생 서클인 ‘동그라미’ 이름에 맞춰 지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이 두 그룹이 함께 모여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첫해인 2019년에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 캘리그래피 작가를 초청

해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작품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참가자들이 썼던 글 중 인상 깊은 작품이 많아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템플스테이 체험회”를 열었습니다. 지리산 연곡사 스님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했으며, 약 70명이 참여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퀴즈, 명상 시간, 한국 차 시연회 등이 포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K문학 독서회 - 『아몬드』를 읽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일본에서 ‘서점 대상(번역소설 부문)’을 수상한 한국 소설 『아몬드』를 읽

고 감상을 나누는 독서회였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고립감을 느끼던 시기였는데, 이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노래를 통한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별’, ‘임진강’, BTS 노래 등에 관련된 발표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멤버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져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한국 시 세계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세계를 감상하고, 시낭독 및 윤동주 시인을 일본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이바라기 노리코 시인의 시 감상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한국의 전통문화 - 보자기 만들기



▲ 모임에서 함께 읽은 『아몬드』와 윤동주 시인의 시



▲ ‘보자기 만들기 체험회’ 안내문



▲ 강연을 경청 중인 ‘보자기 만들기 체험회’ 참가자들

기 체험회”를 열었습니다. 1부에서는 전통문화인 보자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2부 워크숍에서는 비단 천을 꿰매어 책갈피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본의 바느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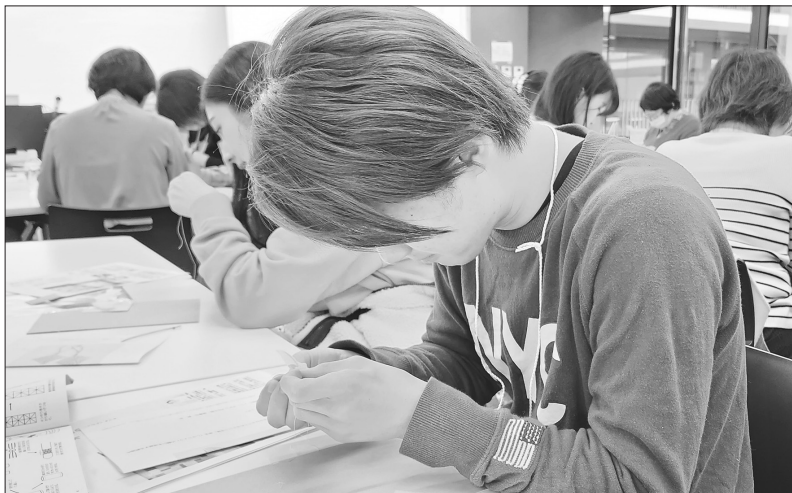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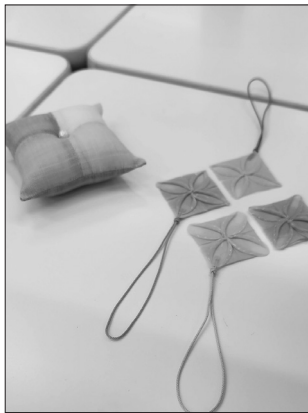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의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가님의 아름다운 보자기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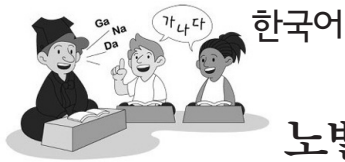
“저는 독일인으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국의 바느질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감을 나누며 이벤트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한국의 전통공예인 ‘한지등’을 만드는 이벤트인 “한지 세계로의 초대- 한지등 만들기 체험회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벤트가 될지, 참가자들과 어떤 것들을 나누게 될 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이벤트 준비 과정은 늘 쉽지 않았지만, 많은 멤버들이 서로 도우며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눴기에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한국 문화 체험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과 공감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자기 만들기 체험회 활동 모습



한국어

노벨문학상으로 커진 관심 속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박차'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외국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상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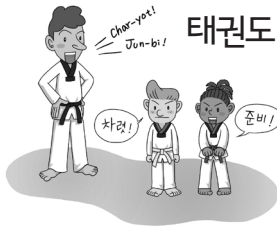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 한국어 보급 관련 데이터를 추적·분석하고 국가별 특성에 따른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관인 '(가칭)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어교육 신규 수요국을 지속해서 발굴하면서 이미 한국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는 확산 단계가 고도화될 수 있게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지의 자생적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선 한국어 원어민 교사 파견을 늘리고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언어·사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고, '모두의 한국어' 등 디지털 한국어 학습콘텐츠를 지속해서 찾아 한국어채택교,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과 공유한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2024/11/25



▲ 지난 8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태권도

한국, 첫 세계태권도버추얼선수권대회서 은 1·동 2개 수확

한국이 역사적인 첫걸음을 댄 세계태권도버추얼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11월 17일 싱가포르 OCBC 아레나 스포츠 허브에서 열린 제1회 세계태권도버추얼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은메달과 동메달 하나씩을 획득했다.

버추얼태권도는 모션 트래킹(동작 추적) AXIS 시스템과 VR헤드셋을 사용해 가상 상대와 실시간 대결하면서 격투 게임처럼 제한 시간 동안 상대의 파워 게이지를 완전 소진하거나 남은 게이지가 더 많은 선수가 승리하는 방식의 새로운 태권도 경기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태권도의 영역 확장과 글로벌 성장을 위해 세계태권도버추얼선수권대회를 창설하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이틀간 첫 대회를 개최했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4/11/18



▲ 세계태권도버추얼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박성빈(오른쪽)의 청년 개인전 남자부 결승전 모습

■ 9월 문화탐방... 성북동 탐방

지난 9월 26일(목), 9월 문화탐방으로 성북동 일대를 탐방하였다. 동행한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혜곡 최순우, 만해 한용운, 상허 이태준 등 역사·문화 관련 선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최순우 옛집, 심우장, 선잠 단지, 길상사 등을 돌아보며 역사, 종교, 건축양식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탐방이었다. 이번 탐방에도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여 성북동의 여러 문화유산 및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11월 문화탐방... 종묘 탐방

지난 11월 1일(금), 11월 문화탐방으로 종묘를 방문하였다. 서울 종로에 자리한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조선 왕실, 대한제국 황실의 유교 사당으로, '종묘사직'이란 말에서도 드러나듯 왕실과 나라를 상징하는 조선의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정전 등은 아름다운 건축 양식으로도 유명하다. 종묘는 평일에 정해진 시간별로 해설사 동행해서 관람만 가능하며,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종묘의 역사와 조선왕실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종묘의 아름다운 숲과 단풍도 만끽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탐방 후 저녁 식사하며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해산하였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네팔 '2024 GCS 국제대회' 참석 및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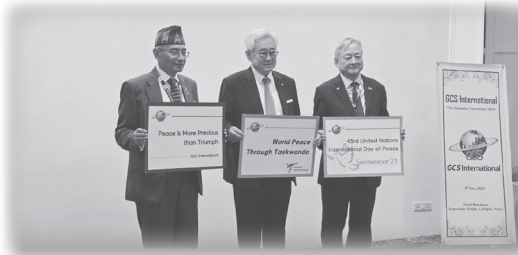
지난 11월 6일(수)부터 12일(화)까지 박의근 재정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ICKC 사절단이 '2024 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GCS International) 국제대회' 및 '2024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 참가를 위해 네팔 카트만두를 방문했다. ICKC 사절단은 이번 방문에서 '엄홍길휴먼재단'에서 네팔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개설 중인 '엄홍길 휴먼스쿨'을 방문해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협약식에 함께 했고, 11월 8일 개최된 '2024 GCS 국제대회'에서는 네팔 소외 계층 태권도 교육을 위해 네팔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1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



▲ 네팔 '2024 GCS 국제대회'에 참가한 ICKC 사절단. 왼쪽부터 이행로 동송갤러리 대표, 김은자-이항구(진일세무법인 대표) 부부, 전영섭 ICK 감사·변호사, 정순영 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ICKC 운영위원(이행로 님의 남편),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박인숙 前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



▲ '엄홍길 휴먼스쿨'에서 열린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협약식과 태권도 시범



▲ '2024 GCS 국제대회'에서 조정원 총재님께 태권도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사진 오른쪽)



▲ '2024 GCS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네팔 현지 문화탐방한 ICKC 사절단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을 전개했다. 이밖에도 옛 카트만두 왕궁의 중심지인 더르바르 광장, 네팔 최대의 힌두교 성지이자 네팔 사람들의 화장터인 파슈타티나트 등을 탐방하며 네팔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태권도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네팔과 대한민국 양국의 문화교류에 일조했다. 6박 7일간 네팔 방문을 큰 탈 없이 무사히 마치고 ICKC 사절단 모두 건강하게 귀국했다.

※ 지면을 빌려 네팔 방문에 참가했던 ICKC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는 ICKC 총재이자 세계태권도연맹의 총재인 조정원 총재의 선친인 故 조영식 박사(경희학원 설립자)께서 1979년 설립된 단체로 1981년 UN “세계 평화의 날”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1997년에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해 국제 NGO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단체입니다. ICKC는 이번에 전달한 태권도발전기금을 포함해, 세계태권도연맹과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2017년), 캄보디아(2018년), 네팔(2019년), 스리랑카(2020, 2022년), 폴란드(2023년) 등 세계 각국에 태권도 문화 진흥 및 교육을 위한 태권도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4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실, 강재근,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성열, 김소진, 김승한, 김시범,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창욱, 김호일, 김홍석, 도재영, 박명영, 박기연, 박명수,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박인숙, 박청수, 배대환, 송대성, 심의표, 양수영, 오일호, 유영찬, 유자효, 이명우,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인재, 이행로,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이효진, 장정용, 전영섭, 전찬수, 정경수, 정상설, 정현관, 조남철, 조성직, 조춘연,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아트코리아, (주)포스코DX, (주)P&H 캐나다순,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12일까지 **총액 : 93,834,30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 한도내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24.03.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박관용 前 국회의장

최불암 예술인

김용구 (주)신동 회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박익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이효진 前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처장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주요 활동 내역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뉘스라켄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 · 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2022년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및 ‘동물사랑 · 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재능교육,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국내 태권도장 수련생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스리랑카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폴란드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스리랑카 GCS 국제대회 및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 참석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 · 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사랑·생명존중

JETI 재능교육

지켜주자, 우리 스스로!



**동물을 사랑하면
우리모두 행복해요!**

 Taekwondo Animal (태권도 애니멀 TV)